

[사회]

“대입 졸속 자율화때 지방대학교사 우려”

광주·전남북 임시처장들 ‘정원외’ 아닌 ‘정원내’ 특별전형 촉구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지방대 고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31개 대학 입학부 관련 처장단은 15일 조선대 3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수능 업무 대교협(전국대학교교육협의회) 이관과 관련한 지역 대학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참석한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남부대, 광주여대, 동신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등 14곳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학 입시자율화가 졸속으로 추진됐을 경우 지방대학의 어려움

이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당선인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대학에도 적용됐을 때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대 입학관련 처장단은 또 임시제도상의 문제에 대해 수능만으로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등급제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급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동점자 양산은 대학의 입장에서 별별 확보를 위해 눈살이나 본고사 등을 부활케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고사 부활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방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집정원 11%의 정원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 4%·전문계고 출신자 5%·재외국민 2%)이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비율은 그대로 두되 ‘정원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설현영 조선대 교무연구처장은 “지방 대학으로서 특별한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기는 쉽지 않다”며 “새 정부가 말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되는 것은 동점자 양산은 대학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정양용(경희대 입학처장) 회장에게 보내지고, 전국교대총협 회장에게 보내지고, 전국교대총협 인신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양용 회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요건을 갖춰야 하고 특히 확인소송의 경우 권리 또는 법



광주와 전남·북 14개 대학 입학부 관련 처장들이 15일 조선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대입 자율화에 따른 지방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대학 등록금 또 마찰 예고

광주·전남 지역 10% 안팎 인상 방침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총학생회와의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대는 최근 재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인상, 국가보조금 감축,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 등록금을 10% 안팎 인상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8.8%의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국립대가 물가인상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선대는 올해 7%의 등록금 인상을 총학생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15~16일 각 단대 학생회장들이 참가하는 간부수련회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협상이 한창인 순천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폭은 이미 정해졌으나 나머지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인상안은 13%였다.

이 밖에 광주대, 호남대, 목포대 등도 각 단대 총학생회와 등록금 인상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교수·학생은 학과 폐지 자격없다”

광주지법 ‘대학 재량’

대학의 학과 개설·폐지는 대학의 재량인 만큼 교수와 재학생들은 대학 학과 폐지의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관사 정경현)는 15일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학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과폐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요건을 갖춰야 하고 특히 확인소송의 경우 권리 또는 법

률상의 지위에 있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와 같은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06년 5월29일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학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하자 해당 학과 교수·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이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직장인들 “술까말”이 대체 뭐지...

73%가 신조어 이해 못해

‘술까말’, ‘정충놈’, ‘흠쭈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약어나 신조어를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855명에게 ‘대화 중 약어, 신조어를 못 알아들은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3.5%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69.4%는 남몰래 단어의 뜻을 검색해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네티즌이 뽑은 지난해 최고 인기 인터넷 용어를 제시하고 이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78.4%가 ‘술까말(술직하 까놓고 말해)’의 뜻을 몰라 가장 생소한 단어로 뽑혔다.

이어 ‘정충놈(정신줄 놓은 사람)’(76.7%), ‘흠쭈무(흠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75.9%), ‘뉴비(신참)’(73.2%), ‘크리(상환이 더 약화됨)’(69.5%), ‘항까항까(하악하악의 오타)’(68.9%)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매서운 겨울바람 1월 16일 (음 12월 9일) <전국날씨> <전국날씨>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흐린 후 개겠다.

광주	후끈 후끈	-3~2℃
주요	후끈 후끈	-2~2℃
포수	후끈 후끈	-1~4℃
수도	후끈 후끈	-2~2℃
안양	후끈 후끈	-4~3℃
대구	후끈 후끈	-3~2℃
부산	후끈 후끈	-3~2℃
인천	후끈 후끈	-2~4℃
대전	후끈 후끈	-5~3℃
전주	후끈 후끈	-2~4℃
목포	후끈 후끈	-6~0℃
여수	후끈 후끈	-6~1℃
제주	후끈 후끈	0~1℃

서울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3.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7:41 썰물 < 00:23
여수 밀물 < 19:46 썰물 < 12:54

▲해돋이 07:40 ▲해질 17:44 ▲달돋이 11:50 ▲달질 00:48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날씨						
최저/최고	-4/3	-2/4	-3/5	-1/7	4/6	-1/5

월 소득 398만원 이하 유치원비 지원 확대

월 평균 소득(소득인정액을 의미)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5세 아동에게 월 최고 16만7천원(사립), 만3~4세 아동에게 월 최고 18만5천원(사립)의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액을 전년도 3천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천억원으로 책정한 유아학비 지원 세부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 도시 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만5세 아동은 사립 월 16만7천원, 국공립 월 5만5천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승용차는 2천cc 이상이고 7년 미만인 차를 의미한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인 경우 60%, 398만원 이하인 경우 30%를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과자 트랜스지방 함량 국산보다 수입산 많아

국산 과자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포화지방 함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과자의 30%는 여전히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해 시중 유통 중인 과자류 181건의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회 제공기준량 당 트랜스지방 함량은 0.1g으로 2005년 대비 86%가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1회 분량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 미만인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의 비율은 69%로 2년 전 38%에 비해 크게 늘었다. 1회 분량당 0.5g 이상을 함유한 제품은 2005년 46%에서 지난해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산과 수입제품을 비교한 결과 수입과자 가운데 1회 제공량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을 넘어서는 제품의 비율은 31%로 국산(1%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트랜스지방 제로화’ 비율은 58%로 국산의 69%에 비해 트랜스지방 저감화 속도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조선대 편입학

2.01 대 1 경쟁

조선대학교 2008학년도 편입학 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747명 모집에 1천572명이 지원, 2.01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455명을 모집하는 일반편입에는 1천23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5대1을, 학사편입에는 247명 모집에 336명이 지원해 1.4대1을 각각 보였다.

일반편입 20.8대1(6명 모집에 125명 지원), 학사편입 21.3대1(7명 모집에 149명 지원)을 기록한 약학부가 일반·학사편입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의 학사편입이 19대1(3명 모집에 57명 지원), 영어교육과 학사편입이 5.5대1(4명 모집에 22명 지원), 사회과학대학 행정·복지학부 일반편입이 4.9대1(13명 모집에 64명 지원) 등을 기록했다. 최종 합격자는 2월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문제은행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고시원용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은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우 - (화,목) 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향서원
www.hgosi.net (062)222-6790

= 겨울방학 대 특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직종

행정직, 교원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모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설직, 물리직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15일 주·야 (졸업반 모집) (합계 2월 1일)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대 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법복지직, 군무직, 교정직, 소방직, 공안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 완성) 개강 2월 1일

9급 이론짜수반 (2개월 완성) 전직종 첫진도

www.hanbitgosi.co.kr (062) 252-025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개발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복지사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진)

교육장소

- 광주(금남로 무등고시학원)
- 목포(하동 숲속이야기 평생교육원)
- 순천(연향동사거리 GMB영어학원)

문의: (062)434-7857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 동문회, 교외행사 등 각종 행사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